

## 동해해수청, 찾아가는 선원이동민원실 (주문진항, 거진항) 운영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이재영)은 원거리 지역 선원들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11월 21일 강릉시 주문진항 해상산업노동조합 사무실과 고성군 거진항 고성선원복지회관에서 '찾아가는 선원이동민원실'을 운영한다.

이동민원실은 선원민원 업무인 해기사 면허 발급 및 갱신, 선원수첩, 취업 규칙, 신고뿐만 아니라 선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 고충상담도 실시한다.

특히, 이번 민원실은 금년도 마지막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업에 바쁜 어민들이 민원업무를 보기 위하여 멀리 떨어진 해양수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적·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참고로 지난 3분기까지 선원근로관계 고충상담 12건, 해기사면허교부 신청 14건, 연근해어선 선원근로감독 사업장 조사자료 9건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.

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“앞으로도 어민, 선원 등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서비스 발굴과 선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.” 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	책임자	과 장	정철락 (033-520-6141)
		담당자	주무관	이경아 (033-520-6145)